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분석 연구

A Study on the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buk Region

윤 희 윤 (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3.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해소 방안 |
| 2. 도서관 격차해소의 중요성과 현주소 | 4. 요약 및 제언 |

초 록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시설, 제3의 장소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충실할 때 회자되는 사회적 오마주가 지식정보 아고라, 문화기반시설,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지역별 주민의 접근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보격차 및 지역격차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사회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시설의 요체로 간주하고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가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 투입지표(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수와 사서수, 운영예산과 자료구입비, 도서수), 산출지표(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산출지표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most countries, public libraries are knowledge information centers, complex cultural spaces, lifelong learning facilities, and third places for local residents. The social homage spoken on the premise of this identity and socio-cultural role i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gora, cultural infrastructure, living room in the city, and the university of the people. However, if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public libraries regardless of country or region, it will inevitably lead to information gaps, regional gaps, and cultural inequality and cultural welfare gaps among local residents. This study is regarded as the essence of regional cultural facilities and premised that the regional gap in public libraries is a factor of regional cultural gaps. Based on this premise, the gap between the location quotient, input indicators, and output indicators of public libraries of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Gyeongbuk region was analyzed. And this study derived core elements through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of input and output indicators of all public libraries nationwide, developed a management model for each indicator, and suggested a plan to resolve the relative gap for public libraries by city and county in Gyeongbuk.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 격차, 정보격차, 문화격차, 도서관 입지계수, 투입지표, 산출지표
Public library, Library gap, Digital divide, Cultural gap, Library location quotient, Input indicator, Output indicator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논문접수일자: 2022년 1월 10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2월 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5-25,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005>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세계적 석학이자 문명비평가 소르망(Sorman)을 비롯한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명명하였다. 문화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임에도 한 마디로 특정 국가나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네루(Nehru)가 역설한 '마음과 정신의 확장'이다. 삶 그 자체이고, 지역사회 생명선이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1970년대부터 문화를 개인적 삶과 사회발전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문화복지를 강조하였고, 2000년대는 생활 속 문화에 방점을 두었으며, 최근에는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권 보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적 메뉴가 문화시설 확충, 생활문화 확대, 문화소비 촉진, 문화융성 등이다. 그럼에도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도 심하다. 이를 방지한 문화의 세기, 문화국가론, 문화도시 조성론, 문화격차 해소론은 허위의식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최적화된 장서 기반의 다양한 지식정보 및 프로그램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습득, 독서활동, 평생학습,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때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문화기반시설, 커뮤니티센터,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라는 오마주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 반대로 도시와 농어촌, 시도 간, 시군구 간 공공도서관 편차나 불균형이 심하면 문화향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문화격차로 귀

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다양한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거시적 차원의 일부로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격차를 논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시도별 및 특정 시도 내의 시군별 공공도서관 격차를 정밀 분석한 연구는 없다. 추상적 개념의 문화를 공간적 관점인 지역에 대입하여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지역별 문화격차를 파악·해소하려면 공공도서관 격차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시설의 요체로 간주하고 시도 간 내지 시군 간의 상대적 격차가 지식문화 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 투입지표, 산출지표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산출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의한 변수를 추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시군별 공공도서관 격차는 지식문화 격차를 초래하고 지역문화 격차의 단초로 작용하며, 그 파장은 지력격차 및 사회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본 연구에 적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기술통계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한국도서관연감」에 탑재·수록된 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둘째, 시도별 및 경북지역 공공도서관의 시군별 격차는 입지계수, 투입지표, 산출지표로 나누어 분석한다. 입지계수의 경우, 시도별은 '시도

공공도서관수= 시도 인구수/전국 공공도서관수
 ÷ 전국 총인구'로, 경북지역 시군별은 '시군별 공
 공도서관수= 시군별 인구수/경북 공공도서관수
 ÷ 경북 총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투입· 산
 출지표는 각각의 복수 핵심요소를 조합한 1개관
 당, 사서 1명당,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으로 환
 산하여 산출한다.

셋째, 경북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표별 관리
 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은 SPSS Statistics 18
 을 이용하여 투입· 산출지표를 상관 및 회귀분
 석한 후 유의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경북지역 시군별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과제로 연구할 계획이다.

1.3 선행연구 개관

여러 문화시설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일부 사례로 논한 주요 선행연구
 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용치(2003, 120-147)는 도서관, 미술
 관, 공연장, 영화관, 문화유산, 지역문화복지시
 설, 문화원, 문화의 거리를 포함하는 문화인프
 라,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공연회수, 전시
 회수, 출판사, 인쇄소, 지역문화축제를 포함한
 문화소프트웨어 개수, 문화예산 등 문화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문화격차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박노동과 김홍태(2012)는 대전시
 를 대상으로 문화시설(공공도서관, 등록 박물관
 ·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국공립과학관, 영화
 관)을 대상으로 평균 및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대도시의 문화적 여건이 양호하고, 문화시
 설 규모가 크며, 도시 간 격차도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양혜원(2015, 154-155)은 4가지
 변수(비 서비스권 비율, 지역인구 비율, 청소년
 계층 비율, 재정 의존도)에 각각 가중치¹⁾를 부
 여하여 시도별 공공도서관 입지지수를 산출하
 였다. 그 결과, 전국 평균(24.7)보다 높은 시도
 는 강원(47.6), 경북(42.2), 경남(37.0), 전남
 (35.4), 충북(33.0), 전북(29.7), 충남(27.2), 경
 기(25.6)의 순이었고, 평균 이하는 서울(8.5), 부
 산(10.9), 대전(16.0), 광주(16.7), 인천(18.0), 제주
 (18.4), 세종(20.9), 대구· 울산(각 23.4)의 순
 으로 나타났다. 다만, 용어로 사용된 입지지수
 와 투입변수가 적합한지는 논증이 필요하다.

2. 도서관 격차해소의 중요성과 현주소

2.1 도서관 격차해소의 중요성

격차는 사회경제적 편중이나 불평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집단· 계층· 지역 간 차이를 말한

1) 비 서비스권 비율[(토지면적-서비스권역 면적)÷토지면적×100]은 0.49, 지역인구 비율(지역인구÷전국 총인구
 ×100)은 0.27, 청소년계층 비율(14세 이하 청소년계층 인구수÷지역인구수×100)은 0.15, 재정 의존도 비율[(일반
 예산 회계-자체예산)÷지역 일반회계 예산×100]은 0.09를 부여하였고, 입지지수(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접근
 성이 취약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다. 사회에서는 소득격차, 교육격차, 의료격차, 사회격차, 지역격차, 문화격차, 정보격차 등이 범용되고 있다. 가장 광의의 사회격차는 정치적·경제적·지역적 격차를 모두 포괄하며, 가장 친숙한 정보격차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의하였듯이 기회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이용격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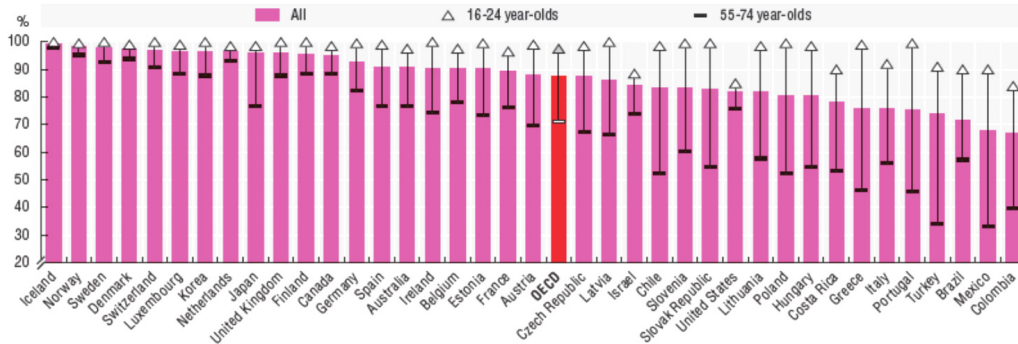
도서관 격차는 사회격차, 지역격차, 문화격차에 종속되지만 정보격차를 포괄한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권역 내 주민의 정보접근·이용, 문화향유,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안전망, 지방공공재, 문화기반시설, 정보공유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프라다. 도로, 하천, 체육관, 문화센터 등과 같은 단순영조물이 아니다. 통시적 장서개발, 체계적 DB구축, 다양한 지식정보 및 프로그램서비스, 후대를 위한 보존관리 등을 중시한다. 모두 지식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하여 국가에게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는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가치이자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권리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 제1조(목적)도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배후와 중요성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에는 지식격차(knowledge gap)의 가설이 적용된다. 1970년 티치너(Tichenor, 1970, 159-170) 등이 제시한 지식격차 가설은 ‘사회시스템에 주입된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은 하위계층보다 정보를 조속히 습득하고, 이에 따른 계층 간 지식격차가 증가한다’는 논지다. 이에 주목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농어촌 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격차를 방치하면 취약계층의 지식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세대 간 또는 계층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가교다. 그럼에도 인터넷 정보유통의 보편화에 따른 연령대별 디지털 접근·이용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가령 2019년 OECD 국가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자 비율을 집계한 <그림 1>을 보면 젊은 세대(16-24세) 대비 노인(55세-74세)의 격차는 평균 30% 내외에 달하고, 국가에 따라 상대적 격차는 더 심하다(OECD, 2019, 95). 국내도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 일반국민과 비교한 4대 취약계층의 접근수준은 91.7%인 반면에 역량수준(60.2%)과 활용수준(68.8%)의 격차는 상당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21). 이러한 간극을 좁혀야 할 공공도서관의 격차가 심하면 취약계층의 접근역량 및 활용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그림 1〉 OECD 회원국의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자 비율(2019)

셋째, 공공도서관은 비배제성과 비경쟁성 기반의 지방공공재이자 지식정보센터다. 공공도서관에 격차가 실재하면 주민의 정보접근을 위한 기회·활용·수용에서의 격차도 불가피하다. 기회격차의 개인적 요소는 경제자본과 하드웨어 조작기술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확대와 직결되어 있다. 활용격차는 문화·사회자본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교육, 검색지원서비스, 체험기회 확대와 연계되어 있다. 수용격차는 공공도서관에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면 지식정보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문화향유에 걸림돌이 된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격차는 지식문화에 대한 물리적 및 지리적 접근성 격차를 초래한다. 전자는 도서관 부재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투입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용할 수 없거나 소외되는 현상을 말하며, 후자는 도서관 분포가 불균등하여 지식문화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문화 격차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시도 간, 수도권과 지방, 지역 내 시군구 간 공공도서관 격차를 설명할 때 유용하다.

다섯째, 법적 측면에서 「도서관법」 제7조 제

3항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격차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를 5가지(자료의 확충·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편의시설 확충·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도서관 차원에 못 지않게 시도 내지 시군 간 공공도서관 격차도 해소해야 차별 및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

여섯째, 공공도서관 인프라 격차는 지식문화 격차와 직결된다. 이를 해소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권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별 해소, 사회적 관점에서 공리주의 실현과 갈등 해소, 규범적 차원에서 재화의 분배 정의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일곱째,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도 지역 간 상대적 격차해소는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은 대중이 문화활동을 표출·소통하고 지역문화를 창출·보존하는 시설적 기능, 지역문화 환경을 조성·활성화하는 지역적 기능, 소통과 동행을 위한 공동체문화 형성·확대 등 사회적 기능, 독서·평생학습·정보해득력 등 교육적 기능, 문화서비스 및 향유기회 제공을 통

한 격차해소의 공공적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

여덟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이용, 독서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문화 커뮤니티 형성 등을 위한 지식문화 향유공간이다. 그 결과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공성 강화와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한다. 따라서 지역 간 공공도서관 격차가 존재하면 문화적 불평등 및 문화복지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2 전국 시도별 공공도서관 격차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은 총 1,134개다. 이들의 시도별 기초통계 데이터(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도서수, 직원 및 사서수,

운영예산, 이용자수, 대출책수, 1회성을 제외한 문화·도서관·독서관련 강좌(프로그램) 참가자수)를 집계하면 <표 1>과 같다. 그리고 기초통계 데이터를 상호 연계·분석한 시도별 공공도서관 입지계수, 투입 및 산출지표의 격차는 <표 2>와 같다.

2.2.1 입지계수 격차

도서관 입지계수(Library Location Quotient)는 전국 공공도서관 설치 대비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집중도 내지 상대적 비중을 대변하는 지표다. 이를 산출한 결과, 경북의 입지계수(1.13)는 전국 평균(1.0)보다 높지만 통상 입지계수가 1.25 이상일 때 도서관 설치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하며, <그림 2>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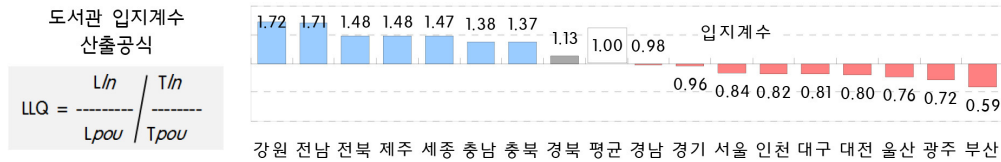
<표 1> 시도별 공공도서관 기초통계 데이터(2019년 말 기준)

시도	인구수 (명)	도서관수 (개)	연면적 (㎡)	직원수* (명)	사서수* (명)	운영예산 (천원)	도서수 (권)	자료실 이용 자수(명)	대출책수 (권)	강좌** 참가 자수(명)
서울	9,729,107	180	341,366	1,741.5	1,189	161,139,731	14,977,157	49,817,847	24,145,661	2,933,172
부산	3,413,841	44	120,653	481.5	271.5	52,398,169	5,935,375	10,715,485	6,940,043	5,280,131
대구	2,438,031	43	100,202	434.5	246	36,168,318	4,561,041	7,749,925	6,860,291	693,257
인천	2,957,026	53	130,112	574.5	253.5	53,284,260	4,785,154	11,430,979	5,660,545	512,757
광주	1,456,468	23	95,627	277.5	129	32,284,040	2,657,992	3,650,689	2,492,413	229,311
대전	1,474,870	26	80,635	234	130.5	32,018,372	3,029,623	4,613,789	3,370,988	209,976
울산	1,148,019	19	53,859	188.5	87	18,772,794	2,097,521	4,542,303	2,619,049	147,538
세종	340,575	11	14,479	25.5	15.5	3,710,148	488,635	979,141	1,164,891	29,793
경기	13,239,666	277	895,370	2,146	1,128	329,951,361	32,784,128	62,839,950	44,827,699	2,203,779
강원	1,541,502	58	126,929	365	197	43,565,424	5,165,475	4,440,793	3,033,246	501,330
충북	1,600,007	48	106,508	333	156.5	43,305,115	4,445,320	5,028,311	4,071,823	336,815
충남	2,123,709	63	158,749	459.5	198	55,686,527	5,995,196	6,638,896	5,669,958	1,072,516
전북	1,818,917	59	136,193	454	178.5	54,072,842	4,950,186	4,146,080	3,524,201	506,969
전남	1,868,745	70	146,735	498.5	234	59,931,408	6,479,910	5,546,021	4,097,767	875,335
경북	2,665,836	66	154,699	491	264	70,215,223	6,333,526	8,117,547	5,063,870	401,546
경남	3,362,553	72	186,371	580	334.5	80,755,456	7,772,388	1,039,162	8,181,987	1,454,172
제주	670,989	22	50,558	218.5	77.5	19,770,724	2,616,004	2,253,248	2,044,572	144,394
계	51,849,861	1,134	2,899,045	9,503	5,090	1,147,029,912	115,074,631	202,230,166	133,769,004	12,772,809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0.5명으로 계산하여 포함시킴.
 ** 1회성을 제외한 강좌형 프로그램(문화, 도서관, 독서 관련).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표 2〉 시도별 공공도서관 핵심지표 비교(2019년 말 기준)

시도	입지 계수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 (명)	투입지표								산출지표			
			면적(m ²)		예산		직원수(명)			도서(권)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 (명)	1명당 대출액수 (권)	1명당 강좌 참가수 (회)
			1개관당 면적	1천명당 면적	1개관당 운영비 (천원)	1명당 자료 구입비 (원)	1개관당 직원수	1개관당 사서수	사서 1명당 서비스 인구	1개관당 도서수	1명당 도서수			
서울	0.84	54,051	1,896	35.24	895,221	1,747	9.68	6.61	8,155	83,206	1.54	276,766	2.48	0.30
부산	0.59	77,587	2,742	35.34	1,190,867	1,677	10.94	6.17	12,574	134,895	1.74	243,534	2.03	1.55
대구	0.81	56,698	2,330	41.54	841,124	1,744	10.10	5.72	9,931	106,701	1.87	180,231	2.81	0.28
인천	0.82	55,793	2,455	43.49	1,005,363	1,642	10.84	4.78	11,852	90,286	1.61	215,679	1.91	0.17
광주	0.72	63,325	4,158	65.66	1,403,654	1,243	12.07	5.61	11,290	115,565	1.82	158,726	1.71	0.16
대전	0.80	56,726	3,101	53.30	1,231,476	1,869	9.00	5.02	11,259	116,524	2.06	117,453	2.29	0.14
울산	0.76	60,422	2,835	46.91	988,042	1,787	2.32	4.58	13,196	110,396	1.83	239,069	2.28	0.13
세종	1.47	30,961	1,316	42.51	337,286	3,623	7.75	1.41	21,973	44,421	1.43	89,013	3.42	0.09
경기	0.96	47,787	3,944	67.63	1,191,160	2,543	6.29	4.07	11,737	118,354	2.48	226,859	3.39	0.17
강원	1.72	26,578	2,188	82.34	751,128	2,346	6.94	3.40	7,825	89,060	3.35	76,565	1.97	0.33
충북	1.37	33,333	2,219	66.57	902,190	2,409	7.29	3.26	10,224	92,611	2.78	104,756	2.54	0.21
충남	1.38	33,710	2,520	74.75	883,913	2,921	7.69	3.14	10,726	95,162	2.82	105,379	2.67	0.51
전북	1.48	30,829	2,308	74.88	916,489	1,903	7.12	3.03	10,190	83,901	2.72	70,273	1.74	0.28
전남	1.71	26,696	2,096	78.52	856,163	3,128	7.44	3.34	7,986	92,570	3.47	79,229	2.19	0.47
경북	1.13	40,391	2,344	58.04	1,063,867	2,449	8.06	4.00	10,098	95,963	2.38	122,993	1.90	0.15
경남	0.98	46,702	2,588	55.43	1,121,604	2,236	9.91	4.65	10,052	107,950	2.31	144,363	2.43	0.43
제주	1.48	30,500	2,298	75.35	898,669	2,897	9.91	3.50	8,658	118,909	3.90	102,420	3.05	0.22
평균	1.00	45,417	2,556	55.89	1,011,490	2,166	8.38	4.49	10,187	101,477	2.22	153,724	2.58	0.25



〈그림 2〉 시도별 공공도서관 입지계수 산출 결과

보면 특히 동일한 성격의 광역도 중 강원(1.72), 전남(1.71), 전북(1.48), 충남(1.38), 충북(1.37) 과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

2.2.2 투입·산출지표 격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는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하는 방식이 범용된다. 투입 산출모형(input-output model)은 데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이 최대 난제이자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공공도서관은 정부 공식통계인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과 국가도서관통계사이트를 이용하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먼저 투입요소는 도서관수, 연면적, 운영예산, 직원수, 사서수, 도서수가 대표적이다. 이들을 1개관 또는 서비스 인구로 환산한 투입지표는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연면적·직원, 사서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 서비스 인구 1명당

자료구입비 및 도서수 등이다. 경북을 중심으로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투입지표 격차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는 부산, 광주, 울산, 대전, 대구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강원, 전남, 제주, 전북, 세종의 순으로 적다. 경북 공공도서관의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40,391명)는 전국 평균(45,417명)보다 약 11.1%(5,026명) 적지만, 가장 적은 강원(26,578명)보다 약 52%(13,813명)나 많고 선진국 기준인 2만명 이하와 비교하면 2배에 달한다.

둘째, 1개관당 연면적(㎡)은 광주, 경기, 대전, 울산, 부산의 순으로 넓고 세종, 서울, 전남, 강원, 충북의 순으로 좁다. 경북 공공도서관의 1개관당 연면적(2,344㎡)은 전국 평균(2,566㎡)보다 약 8.3%(222㎡) 적고, 가장 넓은 광주(4,158㎡)의 56.5%에 불과하다.

셋째, 1개관당 직원수 및 사서수의 경우, 전자는 광주, 부산, 인천, 대구, 경남, 제주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충북의 순으로 적다. 경북 공공도서관 직원수(8.06명)는 전국(8.38명)보다 약 3.8% 적고, 가장 많은 광주(12.07명)와의 격차는 4.01명에 달한다. 후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세종, 전북, 충남, 충북, 전남의 순으로 적다. 경북 공공도서관 사서수(4명)는 전국 평균(4.49명)보다 약 10.9% 적고, 가장 많은 서울(6.61명)과의 격차는 2.61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경북 공공도서관의 사서 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10,098명)는 전국 평균(10,187명)보다 약간 적지만, 가장 적은 강원(7,825명)과 비교하면 약 29%(2,273명)나 많다.

넷째,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자료구입비 및

도서수의 경우, 전자는 세종, 전남, 충남, 제주, 경기의 순으로 많고 광주, 인천, 부산, 대구, 서울의 순으로 적다. 경북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인구당 자료구입비(2,449원)는 전국 평균(2,166원)보다 약 13.1% 많아 양호한 편이지만, 가장 많은 세종(3,623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1,457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후자는 제주, 전남, 강원, 충남, 충북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세종, 서울, 인천, 부산, 광주의 순으로 적다. 경북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도서수(2.38권)는 전국 평균(2.22권)보다 약 7.2% 많아 양호하지만, 가장 많은 제주(3.90권)와 비교하면 1.52권이 적다.

요컨대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평균 투입지표를 비교한 결과, 경북의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와 사서 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적고 서비스 인구 1명당 자료구입비 및 도서수는 전국 평균보다 양호하다. 반면에 1개관당 연면적, 1개관당 직원수 및 사서수는 전국 평균보다 적어 부실한 편이다. 그 격차를 집약하면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산출요소는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가 대표적이다. 이들을 1개관 또는 서비스 인구로 환산한 산출지표는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 1명당 대출책수 및 강좌 참가자수다. 경북을 중심으로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산출지표 격차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인천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전북, 강원, 전남, 세종, 제주의 순으로 적다. 경북 공공도서관의 1개관당 이용자수(122,993명)는 전국 평균(153,724명)보다 20%(30,731명) 적고, 유사한 성격의 경남(144,363명)보다 14.8%

〈표 3〉 전국 대비 경북의 평균 투입지표 격차 비교

투입지표	전국			경북 평균	경북 현주소		전국 평균 대비 평가
	최고	최저	평균		전국 최고 대비	전국 평균 대비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명)	77,587(부산)	26,578(강원)	45,417	40,391	-37,196	-5,026	양호
1개관당 연면적(m ²)	4,158(광주)	1,316(세종)	2,556	2,344	-1,814	-212	부족
1개관당 직원수(명)	10.94(부산)	2.32(세종)	8.38	7.44	-3.50	-0.94	"
1개관당 사서수(명)	6.61(서울)	1.41(세종)	4.49	4.0	-2.12	-0.49	"
사서 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명)	21,973(세종)	7,825(강원)	10,187	10,098	-11,875	-98	양호
인구 1명당 자료구입비(원)	3,623(세종)	1,243(광주)	2,166	2,449	-1,206	+283	"
인구 1명당 도서수(권)	3.90(제주)	1.43(세종)	2.22	2.38	-1.52	+4.09	"

(21,370명) 적으며, 가장 많은 서울(276,766명)과 비교하면 무려 44.4% 적다.

둘째, 가장 중요한 산출지표인 인구 1명당 대출책수는 세종, 경기, 제주, 대구, 충남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광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경북(1.9권)은 전국 평균(2.58권)의 약 73.6%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세종(3.42권)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셋째,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강좌 참가횟수는 부산,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순으로 많은 반면에 세종, 울산, 대전에 이어 네 번째로 적은 경북(0.15회)은 전국 평균(0.25회)의 60% 수준이고 가장 많은 부산(1.55회)의 약 9.7%에 불과하다.

요컨대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평균 산출지표를 비교한 결과, 〈표 4〉와 같이 경북의 1개관당 이용자수 및 인구 1명당 대출책수는 전국 평균

보다 크게 적고, 강좌 참여횟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장 많은 시도나 전국 평균과 비교한 각각의 격차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2.3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 격차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경북지역 공공도서관은 총 66개관(시군 38개, 교육청 28개)이다. 이들의 시군별 기초통계 데이터(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도서수, 직원수, 사서수, 운영예산,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를 집계하면 〈표 5〉, 기초통계 데이터를 연계·산출한 결과는 〈표 6〉, 경북 평균 대비 시군별 투입·산출지표를 평가하면 〈표 7〉과 같다. 이들을 중심으로 시군별 도서관 입지계수, 투입 및 산출지표의 격차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전국 대비 경북의 평균 산출지표 격차 비교

산출지표	전국			경북 평균	경북 현주소		전국 평균 대비 격차
	최고	최저	평균		전국 최고 대비	전국 평균 대비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명)	276,766(서울)	70,273(전북)	153,724	122,993	-153,773	-30,781	매우 심함
인구 1명당 대출책수(권)	3.42(세종)	1.71(광주)	2.58	1.90	-1.52	-0.68	"
인구 1명당 강좌 참가자수(명)	1.55(부산)	0.09(세종)	0.25	0.15	-1.40	-0.10	"

〈표 5〉 경북 시군별 공공도서관 기초통계 데이터(2019년 말 기준)

시도	인구수 (명)	도서관수 (개)	연면적 (㎡)	직원수 (명)	사서수 (명)	운영예산 (천원)	자료구입비 (천원)	도서수	자료실 이용자수(명)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명)
포항시	507,025	8	19,606	48	31	7,158,149	507,518	706,381	3,376,340	920,275	45,860
경주시	255,402	7	9,443	32	21	11,067,020	492,933	582,769	316,525	510,098	11,780
김천시	141,229	1	7,278	15	9	1,651,197	188,035	236,859	128,406	127,158	558
안동시	160,052	5	11,787	51	25	6,545,460	415,055	524,665	383,354	570,123	42,306
구미시	419,742	6	29,671	71	36	9,749,237	610,115	1,103,840	1,471,839	954,755	86,208
영주시	105,067	3	7,127	25	15	2,821,296	267,645	286,685	304,396	244,758	26,721
영천시	102,470	2	5,578	12	8	5,043,049	244,866	21,2731	158,677	157,425	11,772
상주시	100,688	2	4,700	29	13	2,974,073	178,293	304,899	258,185	212,298	24,261
문경시	72,242	5	8,735	19	11	3,290,505	184,437	387,828	272,596	16,9101	20,623
경산시	263,185	3	10,497	49	18	8,120,298	736,850	383,206	453,094	356,280	24,876
군위군	23,843	1	2,205	8	5	792,301	45,000	83,871	45,493	33,857	6,573
의성군	52,595	2	4,194	13	9	1,042,622	94,326	150,855	84,368	83,144	22,253
청송군	25,416	2	2,387	8	6	733,063	54,229	119,777	64,739	25,958	3,879
영양군	16,993	1	1,125	6	3	673,226	45,103	90,932	21,380	23,456	2,589
영덕군	37,361	1	1,598	5	3	606,471	63,910	78,229	37,487	43,389	5,161
청도군	42,910	2	1,463	11	6	1,344,636	109,300	146,923	90,301	48,433	10,764
고령군	32,373	2	2,622	11	5	1,218,763	103,237	87,007	95,326	46,663	14,786
성주군	44,015	2	2,677	10	6	928,597	87,195	87,195	55,861	44,872	7,534
칠곡군	117,047	4	5,829	21	12	1,279,878	273,181	273,181	616,172	250,898	7,995
예천군	55,100	2	9,619	26	10	10,594,602	133,215	133,215	86,706	77,300	4,522
봉화군	32,150	1	1,022	5	2	271,977	76,220	76,220	40,760	33,677	5,509
울진군	49,314	3	4,916	12	8	1,404,680	210,399	210,399	67,825	116,404	12,209
울릉군	9,617	1	633	4	2	515,678	75,859	75,859	15,362	13,548	2,777
계	2,665,836	66	154,712	491	264	79,826,778	6,529,789	6,333,526	8,445,182	5,063,870	401,546

〈표 6〉 경북 시군별 공공도서관 핵심지표 비교(2019년 말 기준)

시도	입지 계수	투입지표									산출지표				
		1개관당 서비스 대상 인구 (명)		면적(㎡)		예산			직원수(명)		도서(권)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 (명)	1명당 대출책 수 (권)	1명당 강좌 참가수 (회)
		1개관 당 면적	1천명 당 면적	1개관당 운영비 (천원)	1명당 자료 구입비 (원)	1개관 당 직원수	1개관 당 사서수	사서 1명 당 서비스 인구	1개관당 도서수	1명당 도서수					
포항시	0.64	63,378	2,451	38.67	8,948,769	1,001	6.0	3.9	16,356	88,298	1.39	390,268	1.82	0.09	
경주시	1.11	36,486	1,349	36.97	1581,003	1,930	3.0	3.0	12,162	83,395	2.28	45,218	2.00	0.05	
김천시	0.29	141,229	7,278	51.53	1651,197	1,331	9.0	9.0	15,692	236,859	1.68	128,406	0.90	0.004	
안동시	1.26	32,010	2,358	73.65	1,309,092	2,593	5.0	5.0	6,402	104,933	3.28	114,925	3.56	0.26	
구미시	0.58	69,957	4,945	70.69	1,624,873	1,454	11.8	6.0	11,660	183,373	2.63	245,307	2.27	0.21	
영주시	1.15	35,022	2,375	67.81	940,432	2,547	8.3	5.0	7,004	95,562	2.73	191,465	2.33	0.25	
영천시	0.79	51,235	6,352	54.44	2,521,525	2,390	6.0	4.0	12,809	106,366	2.08	106,366	1.54	0.11	
상주시	0.80	50,344	1,176	46.69	1,487,037	1,771	14.5	6.5	7,745	152,450	3.03	129,093	2.11	0.24	
문경시	2.79	14,448	1,747	120.9	955,508	2,553	3.8	2.2	6,567	77,566	5.37	54,519	2.34	0.29	
경산시	0.46	87,728	3,499	39.88	2706,766	2,800	16.3	6.0	14,621	124,402	1.42	151,031	1.35	0.09	
군위군	1.69	23,843	2,205	92.48	792,301	1,887	8.0	5.0	4,769	83,871	3.52	45,493	1.42	0.28	
의성군	1.53	26,298	2,098	79.75	521,311	1,793	6.5	4.5	5,844	75,428	2.38	42,184	1.58	0.42	
청송군	3.17	12,708	1,194	93.92	365,532	2,161	4.0	3.0	4,236	59,889	4.71	14,710	1.02	0.15	
영양군	2.37	16,993	1,125	66.20	673,226	2,654	6.0	3.0	5,664	90,932	5.35	21,380	1.38	0.15	

시도	입지 계수	1개관당 서비스 대상 인구 (명)	투입지표									산출지표		
			면적(㎡)		예산		직원수(명)			도서(권)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 (명)	1명당 대출책 수 (권)	1명당 강좌 참가수 (회)
			1개관 당 면적	1천명 당 면적	1개관당 운영비 (천원)	1명당 자료 구입비 (원)	1개관 당 직원수	1개관 당 사서수	사서 1명 당 서비스 인구	1개관당 도서수	1명당 도서수			
영덕군	1.08	37,361	1,598	42.77	606,471	1,711	5.0	3.0	12,454	78,229	2.09	37,487	1.16	0.14
청도군	1.88	21,455	732	34.12	672,318	2,547	5.5	3.0	7,152	73,462	3.42	45,151	1.13	0.25
고령군	2.49	16,187	1,311	80.96	609,382	3,189	5.5	2.5	6,475	43,504	2.69	23,332	1.44	0.46
성주군	1.83	22,008	1,339	60.84	464,299	1,318	5.0	3.0	7,336	43,598	1.98	27,931	1.02	0.17
칠곡군	1.38	29,262	1,458	50.50	319,970	4,267	5.3	3.0	9,754	68,295	2.33	144,513	2.14	0.07
예천군	1.46	27,550	4,809	174.45	5,297,301	26,106	13.0	5.0	5,510	66,608	2.42	43,352	1.40	0.08
봉화군	1.25	32,150	1,023	31.82	271,977	1,743	5.0	2.0	16,075	76,220	2.37	40,760	1.05	0.17
울진군	2.45	16,438	5,479	99.67	351,170	1,853	4.0	2.7	6,164	70,133	4.27	38,801	2.36	0.25
울릉군	4.19	9,617	633	65.82	515,678	4,679	4.0	2.0	4,809	75,859	7.89	15,362	1.41	0.29
평균	1.13	40,391	2,388	58.04	1,209,497	3,316	7.4	4.0	10,098	95,963	2.38	122,993	2.22	0.15

<표 7> 경북 시군별 평균 대비 공공도서관 투입·산출지표 평가

서비스 대상인구	해당 시군	도서 관수	투입지표								산출지표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 (명)		1개관당 연면적 (㎡)		1명당 도서수 (권)		사서 1명당 서비스 대상인구 (명)		1명당 자료실 이용자수 (명)		1명당 대출책수 (권)		1명당 프로그램 참가수 (회)	
			시군 평균	경북 평균 대비*	시군 평균	경북 평균 대비*	시군 평균	경북 평균 대비*	시군 평균	경북 평균 대비*	시군 평균	경북 평균 대비*	시군 평균	경북 평균 대비*	시군 평균	경북 평균 대비*
2만 미만	영양	1	16,993	-	1,125	-	5.35	+	5,664	-	1.26	-	1.38	-	0.15	-
	울릉	1	9,617	-	633	-	7.89	+	4,809	-	1.60	-	1.41	-	0.29	+
2만-5만 미만	고령	2	16,187	-	1,311	-	2.69	+	6,475	-	2.94	-	1.44	-	0.46	+
	군위	1	23,843	-	2,205	-	3.52	+	4,769	-	1.91	-	1.42	-	0.28	+
	봉화	1	32,150	-	1,023	-	2.37	-	16,075	+	1.27	-	1.05	-	0.17	+
	성주	2	22,008	-	1,339	-	1.98	-	7,336	-	1.27	-	1.02	-	1.17	+
	영덕	1	37,361	-	1,598	-	2.09	-	12,454	+	1.00	-	1.16	-	0.14	-
	울진	3	16,348	-	1,638	-	4.27	+	6,164	-	1.38	-	2.36	+	0.25	+
	청도	2	21,455	-	732	-	3.42	+	7,152	-	2.10	-	1.13	-	0.25	+
청송	2	12,708	-	1,194	-	4.71	+	4,236	-	1.16	-	1.02	-	0.15	-	
5만-10만 미만	문경	5	14,448	-	1,746	-	5.37	+	6,567	-	3.77	+	2.34	+	0.29	+
	예천	2	27,550	-	1,345	-	2.42	+	5,510	-	1.57	-	1.40	-	0.08	-
	의성	2	26,298	-	2,098	-	2.87	+	5,844	-	1.60	-	1.31	-	0.42	+
10만-30만 미만	경산	3	87,728	+	3,499	+	1.42	-	14,621	+	1.72	-	1.35	-	0.09	-
	경주	7	36,486	-	1,349	-	2.28	-	12,162	+	1.24	-	2.00	+	0.05	-
	김천	1	141,229	+	7,278	+	1.68	-	15,692	+	0.91	-	0.90	-	0.004	-
	안동	5	32,010	-	2,357	+	3.28	+	6,402	-	2.40	-	3.56	+	0.26	+
	상주	2	50,344	+	2,351	-	3.03	+	7,745	-	2.56	-	2.11	-	0.24	+
	영주	3	35,022	-	2,375	-	2.73	+	7,004	-	2.90	-	2.33	+	0.25	+
	영천	2	51,235	+	2,790	+	2.08	-	12,809	+	1.55	-	1.54	-	0.11	-
칠곡	4	29,262	-	1,457	-	2.33	-	9,754	-	4.94	+	2.14	+	0.07	-	
30만-50만 미만	구미	6	69,957	+	4,945	+	2.63	+	11,660	+	3.51	+	2.27	+	0.21	+
50만 이상	포항	8	63,378	+	2,450	+	1.39	-	16,356	+	6.16	+	1.82	-	0.09	-
평균(계)	(66)	40,391		2,388		2.38		10,098		3.05		1.90		0.15		

* 경북 평균 대비에서 - 는 평균보다 적고, + 는 많음을 의미함

2.3.1 입지계수 격차

경북의 시군별 공공도서관 입지계수(LLQ)는 <그림 3>처럼 김천, 경산, 구미, 포항, 영천, 상주, 영덕의 순으로 전국 평균(1.0) 및 경북 평균(1.13)보다 낮아 도서관 증설이 요구된다. 그 외에 통상 양호한 기준인 1.25 이하인 경주와 영주에도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

2.3.2 투입·산출지표 격차

먼저 핵심 투입요소인 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 및 사서수, 자료구입비, 도서수를 중심으로 시군별 투입지표의 격차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가 평균(40,391명)보다 많은 시군은 김천, 경산, 구미, 포항, 영천의 순인 반면에 울릉, 청송, 문경, 고령, 울진의 순으로 평균보다 훨씬 적다. 그 가운데 특히 김천(141,229명)은 경북 평균의 3.5배, 전국 평균(45,417명)의 3.1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인구가 훨씬 적은 군(청송, 고령, 울진, 청도 등)에도 2개관 이상이 운영되는 데 비해 김천에는 1개관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프라 격차는 접근·이용의 불편 및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서비스 대상인구 1천명당 연면적이 평균(59.12㎡)보다 많은 시군은 예천, 문경, 울진,

청송, 군위의 순인 반면에 봉화, 청도, 경주, 포항, 경산의 순으로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예천(174.45㎡)과 가장 적은 봉화(31.82㎡)의 격차는 무려 5.5배에 달한다. 또한 10개 시군은 전국 평균(55.89㎡) 및 경북 평균(58.04㎡)에 미달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현상이 서비스 격차와 직결될 것인지는 논증이 필요하지만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공간구성 및 제공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므로 도서관 증설·증축 등을 통한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1개관당 직원수 및 사서수의 경우, 전자가 경북 평균(7.4명)보다 많은 시군은 경산, 상주, 예천, 구미, 김천의 순인 반면에 경주, 문경, 울릉, 울진, 청송의 순으로 평균보다 훨씬 적다. 1개관당 직원수가 가장 많은 경산(16.3명)과 가장 적은 경주(3.0명)의 격차가 5.4배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격차는 18개 시군이 전국 평균(8.38명)에 미달하고, 16개 시군(경주, 문경, 울진, 청송 등)은 경북 평균보다 적다. 직원수 격차는 1개관당 사서수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전국 평균(4.49명)과 경북 평균(4.0명)에 미달하는 시군이 13개(울릉, 봉화, 문경, 고령, 울진 등)에 달하며, 사서 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도 전국 평균(10,187명) 및 경북 평균(10,098명)을 상회하는 시군이 8개(포항, 봉화, 김천, 경산, 영천, 영덕, 경주, 구미)에 달한다. 이러한



<그림 3> 경북 시군별 공공도서관 입지계수 산출 결과

직원수, 특히 사서수 부족현상은 서비스를 부담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격차와 직결되므로 증원 노력이 시급하다.

넷째 인구 1명당 자료구입비 및 도서수의 경우, 전자는 경북 평균(3,316원)보다 많은 시군이 3개(예천, 울릉, 칠곡)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예천(26,106원)은 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이 포함된 데이터이므로 이를 제외한 두 번째로 많은 울릉(4,679원)과 비교해도 그 격차는 무려 4.7배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격차는 절반 이상인 13개 시군의 자료구입비가 전국 평균(2,166원)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후자는 경북 평균(2.38권)에 미달하는 시군이 9개(포항, 경산, 김천, 성주, 영천, 영덕, 경주, 칠곡, 봉화)이고, 전국 평균(2.22권)보다 적은 시군도 6개에 달한다.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도서수가 경북 및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시군의 자료수집력 강화가 시급하다.

요컨대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평균 투입지표는 <표 8>과 같이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직원수·사서수, 사서 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 인구 1천명당 연면적, 인구 1명당 자료구입비 및 도서수에서 편차가 심하다. 시군별 최고와 최저를 비교한 결과, 특히 인구 1명당 자

료구입비와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의 격차가 10배 이상일 정도로 극심하며, 인구 1천명당 면적 및 1명당 도서수도 각각 5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핵심 산출요소인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를 중심으로 시군별 산출지표의 격차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가 경북 평균(122,993명)보다 많은 시군은 포항, 구미, 영주, 경산, 칠곡의 순인 반면에 청송, 울릉, 영양, 고령, 성주의 순으로 평균보다 훨씬 적다. 특히 가장 많은 포항(390,268명)과 가장 적은 청송(14,710명)의 격차는 26.5배에 달할 정도로 극심할 뿐만 아니라 평균과의 격차도 8.4배에 달한다. 또한 전국 평균(153,724명)보다 많은 시군은 3개(포항, 구미, 영주)에 불과하다.

둘째, 가장 중요한 산출지표인 인구 1명당 대출책수가 경북 평균(2.20권)보다 많은 시군은 안동, 울진, 문경, 영주, 구미의 순인 반면에 김천, 성주, 청송, 봉화, 청도의 순으로 훨씬 적다. 가장 많은 안동(3.56권)과 가장 적은 김천(0.9권)의 격차는 약 4.0배에 달하며, 김천은 경북 평균의 40.9%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국 평균(2.58권)을 상회하는 시군은 안동뿐이다.

<표 8> 경북 시군별 공공도서관 투입지표 격차 비교

투입지표	최고	최저	평균	최고 대비 최저의 격차(배)	시군 분포	
					평균 이상	평균 미만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명)	141,229(김천)	9,617(울릉)	40,391	14.7	6	17
인구 1천명당 연면적(㎡)	174.45(예천)	31.82(봉화)	58.04	5.5	13	10
1개관당 직원수(명)	16.3(경산)	3.0(경주)	7.4	5.4	7	16
1개관당 사서수(명)	9.0(김천)	2.0(봉화)	4.0	4.5	10	13
사서 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명)	16,356(포항)	4,236(청송)	10,098	3.9	8	15
인구 1명당 자료구입비(원)	26,106(예천)	1,001(포항)	3,316	26.1	3	20
인구 1명당 도서수(권)	7.89(울릉)	1.39(포항)	2.38	5.7	14	9

셋째,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강좌 참여횟수가 경북 평균(0.15회) 보다 많은 시군은 고령, 의성, 문경, 울릉, 군위의 순인 반면에 김천, 경주, 칠곡, 예천, 경산의 순으로 평균보다 훨씬 적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고령(0.456회)과 가장 적은 김천(0.004회)의 격차는 무려 115배에 달하며, 김천은 경북 평균의 2.7%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극심하다. 그리고 전국 평균(0.25회)을 상회하는 시군은 평균이 동일한 3개 시군(영주, 청도, 울진)을 제외하면 6개 시군에 불과하다.

요컨대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 산출지표의 최고와 최저를 대비한 <표 9>에서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와 인구 1명당 강좌 참가자수의 격차는 각각 26배를 상회할 정도로 극심하고, 인구 1명당 대출책수의 격차도 4배에 달하였다. 게다가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는 20

개 시군, 인구 1명당 대출책수는 22개 시군, 인구 1명당 강좌 참여횟수는 14개 시군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3.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해소 방안

3.1 투입·산출지표의 상관 및 회귀분석

전국 대비 경북 및 도내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핵심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유의한 투입지표가 산출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부실한 71개관을 제외한 1,063개관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10>~<표 11>과 같다.

<표 9> 경북 시군별 공공도서관 산출지표 격차 비교

투입지표	최고	최저	평균	최고 대비 최저의 격차(배)	시군 분포	
					평균 이상	평균 미만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명)	390,268(포항)	14,710(청송)	122,993	26.5	7	16
인구 1명당 대출책수(권)	3.56(안동)	0.90(김천)	2.20	4.0	8	15
인구 1명당 강좌 참가자수(명)	0.46(고령)	0.004(김천)	0.15	115	15	8

<표 10> 전국 공공도서관의 주요 투입·산출지표 상관분석 결과(1,063개관)

구분	연면적	자료구입비	도서수	사서수	강좌수	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
연면적	1	.644**	.735**	.637**	.317**	.596**	.675**	.415**
자료구입비	.644**	1	.595**	.633**	.289**	.557**	.595**	.341**
도서수	.735**	.595**	1	.726**	.356**	.540**	.723**	.433**
사서수	.637**	.633**	.726**	1	.354**	.623**	.598**	.552**
강좌수	.317**	.289**	.356**	.354**	1	.347**	.348**	.434**
자료실 이용자수	.596**	.557**	.540**	.623**	.347**	1	.660**	.425**
대출책수	.675**	.595**	.723**	.598**	.348**	.660**	1	.370**
강좌 참가자수	.415**	.341**	.433**	.552**	.434**	.425**	.370**	1

** < .01

〈표 11〉 전국 공공도서관의 주요 투입·산출지표 회귀분석 결과(1,063개관)

종속변수	모형		R ²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Durbin- Watson	F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자료실 이용자수	(상수)		.547	6182.053	7302.422	-	.847	.397			1.369	212.349 (유의확률 .000)
	대출책수			1.249	.092	.438	13.525	.000	.409	2.444		
	사서수			15305.754	1735.405	.307	8.820	.000	.354	2.829		
	연면적			13.462	2.960	.155	4.548	.000	.369	2.707		
	도서수			-.497	.095	-.198	-5.230	.000	.299	3.344		
	강좌 참가자수			1.090	.299	.091	3.650	.000	.685	1.460		
	자료구입비			.179	.071	.076	2.532	.011	.481	2.080		
대출 책수	(상수)		.653	-2166.488	2651.343	-	-8.17	.414	-	-	1.838	331.212 (유의확률 .000)
	도서수			.367	.027	.418	13.468	.000	.342	2.927		
	자료실 이용자수			.115	.009	.329	13.258	.000	.533	1.875		
	연면적			4.480	.904	.147	4.954	.000	.373	2.682		
	자료구입비			.116	.021	.139	5.378	.000	.492	2.032		
	사서수			-2000.556	535.198	-.114	-3.738	.000	.350	2.855		
	강좌 참가자수			169.508	69.857	.049	2.427	.015	.797	1.255		
강좌 참가자수	(상수)		.363	-3988.813	839.401	-	-4.752	.000	-	-	1.805	120.550 (유의확률 .000)
	사서수			1569.433	158.492	.376	9.902	.000	.418	2.394		
	강좌수			184.272	22.579	.224	8.161	.000	.798	1.254		
	자료실 이용자수			.008	.003	.099	2.937	.003	.533	1.874		
	연면적			.696	.259	.096	2.684	.007	.475	2.107		
	자료구입비			-.014	.007	-.070	-2.005	.045	.495	2.019		

먼저 핵심 투입지표인 연면적, 자료구입비, 도서수, 사서수, 강좌수와 산출지표를 대표하는 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를 상관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였다. 다만, 투입지표 중 강좌수, 산출 지표 중 강좌 참가자수는 각각 모든 투입·산출 지표와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투입지표인 강좌수는 강좌 참가자수를 제외한 산출지표와의 상관성이 낮고, 산출지표인 강좌 참가자수 또한 다른 산출지표와의 상관성이 낮아 강좌를 많이 개설할수록 자료실 이용자수 및 대출책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좌수와 도서관 자료이용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핵심 투입지표인 연면적, 자료구입

비, 도서수, 사서수, 강좌수를 독립변수로, 핵심 산출지표인 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한 결과, 각각의 회귀모형은 Durbin-Watson 통계량이 1.3-1.8로 자기상관이 없으며, 공선성 통계량에서 공차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자료실 이용자수에는 대출책수(0.438), 사서수(0.307), 연면적(0.155)의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설명력(R²)은 약 55%였다. 대출책수에는 도서수(0.418), 자료실 이용자수(0.329), 연면적(0.147), 자료구입비(0.139)의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설명력(R²)은 약 65%였다. 그리고 강좌 참가자수에는 사서수(0.376), 강좌수(0.224), 자료실 이용자수(0.099),

연면적(0.096)의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의 설명력(R²)은 약 36%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경북지역 공공도서관의 시군별 격차를 해소하려면 투입·산출지표별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특히 산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수, 사서수, 연면적, 자료구입비, 강좌수의 상대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의 시군별 격차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3.2 투입·산출지표 관리모형 개발

도서관 경영관리는 '계획-실행-평가'를 근거로 '투입-과정-산출-성과'를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사이클이다. 이들의 목표 대비 산출인 효과

성, 투입자원 대비 산출물인 효과성, 효과와 효율을 포괄하는 외부효과인 성과(편익, 영향, 기여, 만족, 가치 등)를 극대화하거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려면 지표별 관리모형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대다수 공공도서관 지표는 <표 12>와 같이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성과지표를 개발하려면 서비스 대상인구나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설문조사, 인터뷰, 델파이 기법 등을 적용하여 실증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해야 지표화가 가능하다. 또한 지표별 관리모형을 개발하려면 규모변수를 결정하고 구간화해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4조 제1항 별표 2는 연면적, 도서수, 사서수를 대표적 규모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의 기준을 <표 13>처럼 규정하고 있다.

<표 12> 경북 공공도서관 지표별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구분 및 지표화

구분	개념과 함의	지표화
투입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나 서비스의 계획 대비 집행 여부, 즉 경영 효율성 평가요소 • 대개 도서관 경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인력, 시스템, 장비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 ② 사서 1명당 서비스 대상인구 ③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자료구입비 및 도서수 등
과정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과정 진단·측정 요소 • 보통 분기별 목표 대비 달성 가능성을 판단할 때의 진척도, 처리정도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개축 공사 진척도 ② 직원 1명당 DB 구축건수 ③ 파오손도서 대비 보존처리 실적 등
산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리나 업무의 목표 대비 산출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요소 • 통상 처리업무 및 서비스 실적은 데이터로 표현되며 이용자수, 대출책수, 참고서비스건수, 강좌 참가자수 등이 대표적임. 그러나 성과지표는 아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치단체의 도서관 확충 실적 ② 장서 대비 연간 증가책수 ③ 서비스 대상인구 대비 이용자수나 대출책수 ④ 서비스 대상인구 대비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⑤ 서비스 만족도 등
성과 (영향)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 목표, 사회적 존재이유를 정당화하는 경영성과를 의미함 • 경영 효과성과 효율성의 사회적 편익(만족, 가치, 영향)을 함축함 •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거시적이고 궁극적인 지표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적 편익(독서생활화, 정보해득력 강화, 시민의식 고취) ② 사회적 가치(사회참여와 통합, 미래 지식정보 접근·이용 보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역할, 제3의 사회적 장소) ③ 문화적 기여(지역문화 발전, 지식문화 확산, 지식문화도시 창출) ④ 경제적 영향(고용기회 제공, 취업역량 제고, 자료·기기의 구매·소비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

〈표 13〉 전국 공립 공공도서관 규모변수의 법적 기준

서비스 대상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
	건물면적(㎡)	열람석(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 증서(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사서 3명을 둬 • 건물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둬
2만-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 봉사대상 인구: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함

이러한 법적 규모변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준거를 적용하여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표별 관리모형을 제안하면 〈표 14〉와 같다.

첫째, 「도서관법 시행령」의 서비스 대상인구 구간 및 시군별 인구를 연계하여 지표별 관리대상을 설정하되, 서비스 권역 및 대상이 경북 전체인 경북도서관은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목적은 예산, 인력, 시설, 정보기술 등을 투입하여 장서를 확충·보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프로그램, 공간과 시설 등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나비효과가 지방공공재로서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고, 개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므로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로 구성하였다.

셋째, 국내외 사례, 즉 ISO 11620(2014) 도서관 성과지표, ALA 평가지침서, 영국 DCMS의 공공도서관 전국기준, 국내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등을 검토하여 투입지표는 연면적, 서비스 대상인구, 기본장서, 장서신선도, 회원등록률, 산출지표는 도서관 이용회수, 대출책수, 장서회전율, 프로그램 참가율, 취약계층 이용률을, 성과지표는 도서관서비스 만족도와 사회문화적

기여 등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지표별 관리목표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 및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평균값을 준용하되, 전반적으로 시단위 공공도서관의 투입·산출데이터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군단위보다 지표 기준을 높게 책정하였다.

3.3 시군별 공공도서관 격차해소 방안

모든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지역문화(지식, 독서, 학습, 생활, 여가)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할 때 존재가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윤희운, 2015, 9).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핵심 인프라의 상대적 편중과 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다. 시도 내의 도서관 격차가 지역격차와 문화격차를 초래하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지역 공공도서관의 투입·산출지표에 대한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변수(도서수, 사서수, 연면적, 자료구입비, 강좌수)를 법적 규모변수와 연계·제안한 지표별 관리모형을 중심으로 시군별 공공도서관 격차 해소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입지표에서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

〈표 14〉 경북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관리모형(안)

구분	서비스 인구 구간	2만 미만	2만-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30만 미만	30만 이상	비고
	적용 시군	울릉, 영양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울진, 청도, 청송	문경, 예천, 의성	경산, 경주, 김천, 안동, 상주, 영주, 영천, 칠곡	구미, 포항	경북도서관 적용 제외
투입 지표	•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 상한선(명)	1만명	1.5만명	2만명	2.5 만명	3만명	전국 평균 준용
	• 1개관당 건물면적 확보 하한선(㎡)	1,000	1,500-2,000	2,000-2,500	2,500-3,000	3,300 이상	전국 평균 준용
	•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기본장서(권)	2	2-2.5	2.5-3.0	3.0 이상	3.0 이상	연간 전자도서 중수 포함
	• 장서신선도(수집책수÷소장책수×100)	10%	10% 미만 -8%	8% 미만 -6%	6 미만 -5%	5% 이상	3년간 데이터, 수증 포함
	• 회원등록률(등록자수÷서비스 대상인구×100)	50%	50%	50-40%	40% 이상	40% 이상	연간 데이터, 대상인구 기준
산출 지표	•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도서관 이용회수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연간 데이터 입관자 비포함
	•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대출책수(인쇄+전자)(권)	1-2권	2-3권	3-4권	3-4권	5권	연간 데이터, 온라인 포함
	• 장서회전율(대출건수÷장서수×100)	100%	100-110% 미만	110-110% 미만	110-120% 미만	120% 이상	3년간 데이터 평균 적용
	• 프로그램 참가율(참가자수÷서비스 대상인구×100)	서비스 대상인구의 0.5-1.0%			서비스 대상인구의 1.0% 이상		연간 데이터 1회성 제외
	• 취약계층 이용률(이용자수÷서비스 대상인구×100)	취약계층 인구의 30%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 합산
성과 지표	•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5점 척도형 설문)	공통 적용 평균 4.0점 이상					외부 기관의뢰
	• 사회문화적 기여(5점 척도형 설문+전문가 평가)	공통 적용 평균 3.0점 이상					개인·사회적 편익 포함

구의 경우, 전국 평균과 대비하면 비교적 양호하지만 경북 평균(40,391명)을 크게 상회하는 6개 시(김천, 경산, 구미, 포항, 상주, 영천)는 경북도서관과 공조하여 중규모(660-990㎡) 도서관을 추가 건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사서 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의 경우, 23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경북 평균(10,098명)을 상회하므로 분관 설립과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 서비스 대상인구 1명당 도서수는 9개 시군(포항, 경산, 김천, 성주, 영천, 영덕, 경주, 칠곡, 봉화)이 평균(2.38권) 이하이므로 구입 및 수증을 확대하는 한편 경북도서관은 자료구입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산출지표에서 대다수 시군의 1명당 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가 전국 및 경북 평균에 미달하고 시군별 편차도 심하다. 이를 방지하면 도서관의 중요성 및 가치, 신축과 확충, 예산증액,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설득논리를 확보할 수 없고 마스크이나 사회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존재 위기로 연결되어 지식정보센터, 평생학습 산실, 문화향유 거점, 제3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적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되, 거시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서신선도 및 회원등록률 제고를 전제로 도서관 이

용회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되, 특히 장서회전율과 취약계층 이용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지표의 경우, 현 시점에서 시군 간 격차를 파악할 수 없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한국도서관연감」 등 어디에도 실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산출지표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방증하는 논거가 아니다. 여기에 기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연계하여 시군민의 서비스 만족도, 개인적 편익, 정보해득력 및 취업준비 역량 제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기여, 시군민으로서의 자긍심 등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현주소 및 격차를 논증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예산증액, 인력증원, 공간확충, 리모델링, 창의학습 및 창조공간 조성, 스마트도서관, 도서관 중요성 등을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시군 간 공공도서관 격차해소에는 경북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응도를 대표하는 경북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6조에 규정된 경북지식정보센터, 시군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원·협력센터, 공동보존서고 운영, 조사연구 활동, 사서역량 강화 등 정책적 및 우산적 역할을 통해 상대적 격차를 해소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의 지리적 특성(위치, 교통접근성, 이동거리, 도농복합형 여부 등), 인구통계적 분포(연령대별 분포,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비율),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 밀집도가 높고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중규모 이상의 시군은 기존 공공도서관을 거점관으로 삼고 인구가 분산적인 소도시나 농어촌은 복합

문화시설 또는 분관을 추가하도록 지원하여 접근·이용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문화적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4. 요약 및 제언

모든 공공도서관의 만트라(mantra, 진언)는 무료개방형 지식정보서비스 시설이다.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문화·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통과 동행을 지원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 간 공공도서관 격차해소가 필수적인 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제안한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요약 및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입지계수에서 시도별의 경우,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에도 통상 양호한 기준(1.25)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광역도인 강원, 전남북, 충남북과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였다. 경북지역 시군별의 경우는 김천, 경산, 구미, 포항, 영천, 상주, 영덕의 순으로 전국 평균 및 경북 평균보다 낮아 도서관 증설이 필요하다.

둘째, 투입지표의 경우, 시도별 분석에서는 경북의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와 연면적, 1개관당 직원수 및 사서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고 다른 시도와의 격차도 심하였다. 경북지역 시군별 분석에서는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직원수·사서수, 사서 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 인구 1명당 연면적·자료구입비·도서수의 편차가 극심하였다. 산출지표의 경우, 시도별 분석에서는 경북의 1개관당 이용자수 및 1명당 대출책수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적고 인구 1명

당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북지역 시군별 분석에서도 1개관당 자료실 이용자수와 인구 1명당 대출책수 및 강좌 참가자수의 격차가 극심하고 대다수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였다.

셋째, 시도별 공공도서관의 핵심 투입지표(연면적, 자료구입비, 도서수, 사서수, 강좌수)와 산출지표(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자료실 이용자수에는 대출책수, 사서수, 연면적의 순으로, 대출책수에는 도서수, 자료실 이용자수, 연면적, 자료구입비의 순으로, 강좌 참가자수에는 사서수, 강좌수의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넷째, 경북지역의 시군별 공공도서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입지표의 경우, 1개관당 서비스 대상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6개 시(김천, 경산, 구미, 포항, 영천, 상주)는 중규모 도서관을 신설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연면적과 사서 1명당 서비스 부담인구는 절반 이상의 시군이 경북 평균을 상회하므로 분관 설립과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고, 인구 1명당 장서가 평균 이하인 9개 시군(포항, 경산, 김천, 성주, 영천, 영덕, 경주, 칠곡, 봉화)은 수집력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북지역 공공도서관의 시군별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한 산출지표의 경우, 대다수 시군의 1명당 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자수가 전국 및 경북 평균에 미달하고 시군별 편차도 심하므로 장서신선도 및 회원등록률을 제고하여 이용회수, 대출책수, 강좌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되, 특히 장서회전율과 취약계층 이용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 어디에도 성과지표는 없다. 투입·산출지표를 연계하여 시군민 서비스 만족도, 개인적 편익, 정보해득력 및 취업준비 역량 제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기여, 자긍심 등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격차를 논증할 필요가 있다.

경북지역 시군 간 공공도서관 격차해소에는 경북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북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시군 간 공공도서관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시군의 지리적 특성, 인구통계적 분포, 주민 수요 등을 기준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시군은 기존 공공도서관을 거점관으로 삼고, 인구가 분산적인 소도시나 농어촌은 복합문화시설 또는 분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핵심 투입지표의 충실화를 지원해야 산출지표가 제고되고 상대적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세종: 동부.
- [2]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세종: 동부.
- [3]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s://www.libsta.go.kr/>
- [4] 박노동, 김홍대 (2012).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서 및 진흥 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5] 박용치 (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서울시립대 법률행정연구서), 10, 120-147.
- [6]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201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7] 양혜원 (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8] 윤희윤 (2015).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20.
- [9] OECD (2020).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0. Paris: OECD.
- [10] Tichenor, P. A., Donohue, G. A., &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2), 159-17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9).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Sejong: The Ministry.
-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Overview of National Cultural Infrastructure. Sejong: The Ministry.
- [4] Park, No-dong & Kim, Heung Tae (2012). A Study on Ways to Bridge the Cultural Gap and Promote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Daejeon Research Institute.
- [5] Park, Yong-Chie (2003). Cultural gap and cultural industry.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10, 120-147.
- [6] Park, Tae-Sun, Lee, Mee-Young, & Han, U-Seok (2014). The Policy Directions to Relieve the Inter-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7] Yang, Hye Won (2015). A Study on the Plan for Positioning Cultural Faciliti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Korea Culture and Tourism Policy Institute.
- [8] Yoon, Hee-Yoon (2015). The contribution strategy of public library to local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1-20.